

완도해양치유센터 첫돌 이벤트 '풍성'

16개 테라피 시설 5만여명 찾아 각종 할인 프로그램에 선물 증정 "힐링하며 특별한 겨울 보내시길"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많은 사람이 센터에서 힐링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 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해양치유 시설로 개관 이후 5만여명이 방문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 감사 이벤트로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에 '1'이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평일 모든 프로그램을 50% 할인한다.

2월 말까지 남녀 커플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면 2명이 1명 가격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에 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을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아이와 함께 크리스마스'도 운영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한 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 또는 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첫돌을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를 펼친다. 명상물 프로그램. <완도군 제공>

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증정한다. 개인 블로그에 체험 후기(사진 5장, 글자수 500자 이상)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여행 선물 세트를 주는 후기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양치유센터 이용권도 31일까지 연장에 판매한다.

기본 프로그램 이용권을 30장 이상 구매할 경우

60% 할인하며, 프리미엄 이용권은 10장 구매 시 30% 할인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완도에서 힐링하며 특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 대상

전국 175개 시군농업기술센터 평가

해남군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17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청년 농업인 지원, 일자리 창출, 판로 지원 등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정착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대상을 받았다.

해남군은 청년농업인 진입 전과 진입, 정착, 성장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89명을 포함해 지난 2018년부터 전남 최대인 276명의 청년 영농 후계인력을 선발해 육성 중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90만~110만원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 창업자금과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군은 총 11개 사업 41억 2600만원을 투입해 청년 농업인 경영 안정과 최신 농업기술과 혁신 모델 도입 등도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개별농가 자문, 교육 지원과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청년 농업인 신생기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등도 마련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가 2024년 하반기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장학회 552명에 4억 9360만원 지급

하반기 장학 증서 수여식

진도군은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가 2024년 하반기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상반기에 대학교 신입생 총 104명에게 1억 48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날 장학 증서 수여식에서 총 552명에게 장학금 4억 9360만원을 수여했다.

분야별로는 ▲중학생 25만원(70명) ▲고등학생 50만원(186명) ▲대학생 50만~150만원(261명) ▲특기장학생 20만~150만원(31명) ▲

학교 밖 청소년에게 50만원(4명)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08년 설립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 장학기금 248억 원을 조성해 장학금 45억, 교육경비 55억, 명문고 육성 18억, 학교 시설 지원 사업 19억 원 등 총 137억 원을 지원했다.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김희수 진도군수는 "우리 학생들의 꿈을 위한 도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도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내년 설 50만원 지급"...영광군수 '군민행복지원금' 약속

예산 260억여원 편성 군의회 제출

10·26 재선거 당시 장세일 영광군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약속했던 '전 군민 행복지원금 100만원' 공약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행복지원금' 예산으로 260억 8600만원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 16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 재선거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군민 5만2172명에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521억원이다. 영광군은 1차로 50만 원을 내년 설에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나머지 예산 261억원엔 내년 추경을 통해 추석에 지급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행복지원금 지원에 의회도 적극적인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신안군,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교육 17명 양성·배출

9월부터 12회 프로그램 운영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신안군이 다문화 사회의 언어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통·번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17명을 양성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12회에 걸쳐 통·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해 최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로 17명이 참여, 한국어 통·번역사로서 실력과 역할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교육했다.

이들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 8개국 출신들로 기관, 기업,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원에 나선다.

신안군은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산업에서 이들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 출신 수료생 이연희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통·번역사로서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지난 7일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양성 선발 교육 수료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성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

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